

제2기 미주문학

2008

여름호



미주한국문인협회

Korean Literature of America

■ 김용팔 시인 추모 특집 ■

- 10 김용팔 약력
- 12 김용팔 시인의 시
- 16 문인귀 “시를 쓰는 사람은 시대에 살며 주소에서 호소하는 존재이다”
- 23 박상희 저 푸른 여운 향하여...
- 32故박목월 김용팔 시인의 첫 시집 『폐허』序文'에서
- 35 Syed Ameeruddin 김용팔 시의 분석
- 41 캐더린 조(김연숙) 아버지 용서하십시오, 그리고 평안히 잠드십시오, 다시 뵙는 그날까지.....

여름시단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44 강학희 천국의 미소 공모전 | 82 오정방 이소연, 지구로 귀환한 첫 우주인아! |
| 46 강화식 제 3의 공간 | 84 유봉희 겨울잠 |
| 48 고영준 망아지 | 85 이기운 웅달샘 |
| 49 구자애 고무신 | 86 이서영 그리운 들국화 |
| 50 김경웅 낮잠 | 87 이성열 춘정 |
| 52 김내수 올빼미 변주(變奏) | 88 이용애 겨울 나무 |
| 54 김병현 주말 산행기 | 90 이초혜 폭포수 |
| 55 김성수 대화 | 92 장태숙 늙은 어머니를 씻기며 |
| 58 김신웅 이슬 하나에게 | 94 장효정 문병 |
| 60 김영교 더불어 사는 나무 | 96 정국희 어디에서 무얼 할까 |
| 62 김인자 후회 | 98 정문선 봄 |
| 64 김형오 나비 달을 물다 | 100 정여빈 독백 |
| 65 김희주 조각달 | 102 정춘자 무지개 |
| 66 박경호 유턴(U-turn) | 104 조영철 가짜 청자 |
| 68 박민흠 토막 난 목각인형의 비애 | 105 조주현 이슬 |
| 70 박복수 봄의 환상 | 107 차신재 강물 |
| 72 백선영 편도 승차권 | 108 최석봉 데스벨리 새벽하늘에 |
| 74 변재무 바보야 | 가오리연을 띄우다 |
| 76 송정룡 경우가 그렇지 아니한가 | 110 최익철 제비의 노래 |
| 78 안선헌 물의 노래 | 112 한길수 재봉틀 |
| 80 오연희 '깜빡깜빡' | |



관두연 / 등단제도를 돌아본다	김동찬	6
계간 <미주문학> 신인상 작품모집		표2
계간 <미주문학> 구독 안내		4
	문협소식	314
	편집 후기 / 판권	318
표지 사진 / 최문향(소설가, 사진작가)		표지

이창래 에세이

114 강치범 번역 다시 집으로

수

131 강정실 담배와 웰빙

138 고정희 인내의 꽃

필

143 김태영 소나기

148 이정아 따로 또 함께

152 정찬열 좋은 친구는 축복

155 지희선 레이디의 새끼 사랑

158 최향미 속 깊은 아이

소

162 박경숙 집

설

191 이진이 광란의 아리아

210 전성미 이제야 알겠다

249 전지은 산 안개가 걷히면

아
동
문
학

269 동화/이미경 내 이름은 레옹

282 동시/이송희 가족사진

계
간
평

295 정호승 미주문학 (08 봄호)의 시

302 임현영 미주문학 (08 봄호)의 산문

제5회 한글 백일장

성인부장원

284 안현정 꽃나무가 봄을 만나다

학생부장원

290 김 아이린 우리 집

성인부차상

286 최용완 나무

287 김영규 우리 집

학생부차상

291 김해린 우리 집

293 유다은 나뭇잎 아기의 여행

계간 <미주문학> 구독 안내

계간 <미주문학>은 우리의 자산
모두 정기구독 찬조자가 됩시다

<미주문학>은 우리 모두의 자산이요, 발표의 장입니다. <미주문학>이 1년 네 번 발행되는 계간지로 정착되었음은 이미 다 아는 일입니다.

이것은 문협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미주 문학인들의 발표 지면이 늘어난 것을 뜻하며, 곧 우리 모두의 창작 의욕을 돋우고, 전체 문학계의 활성화로 직결됨은 다시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.

또한 이것은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, 우리 회원들을 비롯한 미주 문학인들을 위한 일입니다.

아울러 계간 <미주문학>이 회원들끼리만, 미주 문학인들끼리만 나눠 보는 회원지, 또는 동인지의 한계에서 벗어나, 모든 문학 애호가들도 볼 수 있도록 일반 판매를 위해 작품의 질을 높이고, 편집 제작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이미 밝혔습니다.

우리 모두 계간 <미주문학>의 정기구독 찬조자가 됩시다. 그리고 주위의 문학 애호가들에게도 정기구독을 권고합니다.

우리는 이것을 네 번(호)의, 또는 여덟 번(호)의 책값이라고 여기지 말고 그저 계간 <미주문학>을 위해 찬조한다고 생각합니다.

계간 <미주문학>이 잘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면, 그 열매가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. 다른 누구도 아닌, 모두 우리에게 고스란히 돌아오지 않겠습니까.

우리 모든 문학인들에게 계간 <미주문학>에의 지원을 거듭 요청합니다.



미주한국문인협회

(찬조자 및 정기구독자 명단은 매달 문협월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.)